



여수 송기홍 영광 서희권 영암 조대호 완도 김광수 장흥 송호빈 진도 조상용 함평 김광춘 화순 박순철

여수시립박물관 건립 유물조사 용역 '착수'

유물 기초·현장 조사, 유물수집·확보 방안 등

여수시는 19일부터 4개월간 여수시립박물관 건립을 위한 유물조사 용역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용역내용은 ▲유물 다양 소장처와 타 기관 소장 유물 등에 대한 기초·현장 조사 ▲사진촬영과 진상화를 통한 유물목록 작성 ▲역사·인물·종교·산업·시정자료 등 고고(매장문화재) 자료 중심의 유물조사 ▲유물확보와 관리 방안·비용 분석, 전시방향 제시 등이다.

시는 이번 용역으로 선사에서 현대에 이르는 여수의 역사와 문화 유물을 발굴하고 확보하는 데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여수시 소장품은 전라남도 지정문화재 4점을 비롯해 사적 제 392호 여수 선사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 129점, 향토·민속자료 1785점 등 총 2535점이 있다. 이 중 일부는 여수민속진시관과 이층무공 자당기 거지에 전시돼 있고, 나머지는 문수청사, 예음마루 등에 보관돼 있다.

타 기관 소장 여수 유물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된 비파형동검과 국립광주박물관에 있는 안도배총 유물 등 총 7000여 점에 이른다.

시는 지난 5일 국립광주박물관과 여수 출토유물 장기대여, 박물관 개관과 전시 자문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 박물관 건립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기 위해 '여수시립박물관 건립 추진위원회'를 발족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여수시민과 출항인사, 여수출신 재일동포 등을 대상으로

소장유물 기준운동도 펼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2017년 10월 개관한 '고흥분청문화박물관'의 경우, 대부분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광주박물관에서 유물을 대여해 전시하고 있다"면서 "여수박물관 건립과 함께 전국에 있는 유물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시는 올 1월 말 박물관 부지를 웅천동 이순신공원으로 선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연면적 6300㎡, 사업비 280여억 원 규모의 박물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신청했다.

문체부는 2월 서면심사와 3월 현지실사를 거쳐 4월 최종 심사를 하고 5월 중 적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여수시립박물관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상설전시실과 기획전시실, 어린이체험관 등의 시설이 들어설 계획이다.

여수=송기홍 기자

담양군, '모바일 헬스 케어사업' 참여자 모집

담양군보건소에서 올해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참여자 70명을 내달 5일까지 선착순 모집한다.

참여 대상은 만 19세 이상 담양군민 중 1개 이상의 건강위험요인(혈압, 혈당, 복부둘레, 중성지방, HDL 콜레스테롤)을 갖고 있는 자로, 고혈압·당뇨·고지혈증을 진단받거나 해당 질환 치료를 위해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된다.

선정된 대상자는 6개월 간 스마트폰과 스마트폰을 통해 자신의 건강상태와 생활습관을 확인할 수 있으며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전문의 맞춤형 상담 서비스가 제공된다. 꾸준히 참여하면 스마트폰 무료지급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김순복 군 보건소장은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발병률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참여 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양군보건소(☎380-396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담양=박종영 기자



화순군, '힐링 가족 텃밭' 사전교육 시행

화순군이 가족과 함께 행복을 가꾸는 힐링 텃밭을 분양하고 참여 가족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시행했다.

군은 16일 화순군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진행된 사전교육에서 텃밭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참여자를 위해 마련했다.

이날 군은 텃밭을 가꾸는 도시민과 귀농·귀촌인에게 텃밭 길잡이가

될 '맛있는 텃밭정원 가꾸기'를 배부했다. 이 책자는 화순군농업기술센터가 제작했다.

군은 화순읍 교리 247번지 1898㎡ 부지에 힐링 가족 텃밭을 조성해 1가정 당(1구좌) 16.5㎡(5평) 규모의 텃밭을 분양했다. 전체 72구좌를 분양했다.

군은 참여 가족들이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가족과 함께 텃밭을 가꾸며 농촌 생활을 체험할 뿐 아니라 직접 먹거리를 가꾸는 재미와 행복을 나누는 공간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화순=박순철 기자

영암군, 6만 인구 회복 운동 실천계획 보고회 개최



영암군이 '6만 인구 회복 운동'의 일환으로 18일 인구정책 테스크포스 팀(40여명)을 조직 첫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군은 2012년 기준으로 6만 인구 붕괴가 시작되었는데 이는 전 사회적 현상의 흐름이기는 하나 청년 인구 유입, 출산율 증가를 목표로 인구

정책 플랫폼을 구축, 정책 로드맵을 그려 6만 인구 회복을 하고자 박차를 가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보고회의 주요 내용은 6만 인구 회복운동(단기계획)의 일환으로 인구증가 요소 분석에 따른 주요 실천계획, 추후 집중적으로 추진 할 11대 중점과제, 인구정책종합계획(2020~2024년) 건의·제안 사업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보고회를 시작으로 실무협의회를 분과별로 진행, 팀간의 의견을 공유하며 우리군 실정에 맞게 모든 분야에서 인구증출을 염두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인구정책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영암=조대호 기자

강진군, 서민층 대상 가스시설 개선사업 추진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소외계층...내일까지 신청

강진군이 3월부터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 경제력이 취약한 서민층을 대상으로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관내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서민층을 대상으로 LPG 고부호스를 급속배관으로 무료 교체해주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비로 1억 2천2백만 원이 투입된다.

액화석유가스법에 따르면 주택에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배관 교체기한을 오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강진군은 관원법에 근거해 2020년까지 저소득층 가구의 배관 교체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실제로 군은 지난해 대비 관련 예산을 2천6백만 원을 증액하고, 11개 읍면 498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한국가스안전공사와의 업

무협약을 통해 관내 가스사업자를 선정하는 등 사업추진 시 발생 할 수 있는 가스안전사고 예방에도 크게 중점을 두었다.

사업을 희망하는 서민층 가구에 서는 오는 3월 20일까지 해당 읍면 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한편,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서민층 가스시설은 3,904가구를 완료하였으며, 올해까지 총 대상가구의 88%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강진=김명일 기자

곡성군, 도시스타일리스트 심화과정 개강



곡성군은 지난 15일 전남과학대학교에서 지역 리더를 대상으로 도시스타일리스트 심화과정을 개강했다.

곡성군은 지난 해부터 곡성을 특방마켓 협동조합, 석곡 도시재생지역, 곡성군 청년파트너, 육과 신홍마을공동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도시스타일리스트 기초교육과정을 실시한 바 있다.

이들은 그동안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역 리더로 거듭나기 위해 교육과 벤치마킹을 통해 도시재생과 주민 주도 일자리 창출사업 등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

그 결과 지역 여건에 맞는 기반 시설과 운영 방안 농촌수익사업 모델, 지속적 가능한 지역 고유 행사 등 다양한 의견을 도출하기도 했다.

이번 심화과정에는 도시스타일리스트 기초과정을 수료한 26명이 참여한다. 개강을 시작으로 교육생들은 기초교육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세부적인 콘텐츠 모색과 구체적 실현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곡성군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아이템을 발굴하고, 참여 주체들은 각자의 발전방향을 모색해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생각이다.

군 관계자는 "여러 지역의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우리 군에 맞는 발전 방향을 주민이 직접 수립해보는 좋은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며 교육과정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곡성=김광휘 기자

장흥군, 위험도로 개선 위한 주민설명회 열려

마을이장·토지소유자 등 참여

지난 14일 안양변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기산지구 위험도로 개선사업 주민설명회가 열렸다.

전남도 도시관리사업소가 주관한 이번 주민설명회는 위임국도 18호선 구간 중 위험한 교차로 구간(수양삼거리 일원)과 선형구간(해창, 사촌리 일원) 개선을 위해 개최됐다.

참가한 마을이장을 비롯한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은 설명회 막바지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주민들은 수양삼거리의 교량 위치 변경, 사업에 따른 수양 정거장 이동위치 등에 대한 궁금한 사항과 요청사항을 전달했다.

설명회 구간 외에도 현재 주민들이 겪고 있는 구간의 교통 불편사항에 대해서도 건의했다.

장흥=송호빈 기자

친환경 천연 장성잔디

전남 장성군은

전국 최대의 잔디생산지이자, 30여년의 잔디 재배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어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품질, 용도의 잔디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 잔디 생산의 메카입니다.

장성잔디

장성잔디향토사업단
061. 393. 8981

전국 잔디 생산량 62.2%

장성군은 전국 잔디의 62.2%를 생산하는 국내 최대 잔디 생산지 생산액은 304억 규모로 생산액 기준으로는 전국의 66.5% 차지

국내 최고의 품질

토질이 우수한 황토 흙에서 키워 품질이 우수하며 잔디의 맛과 강도가 매우 높음.

현대화된 장비로 효율적 관리

잔디의 회전율이 높고 예지 후 잔디 예초율에 대한 수거작업 실시로 대취 관리 병행